

갈라디아서 강해

신년 사경회 2026

복음과 자유

손상원 교수(성서학)
(Dallas Baptist University)

A complex, light gray network pattern of interconnected dots and lines covers the entire background, resembling a molecular or digital structure.

복음과 자유

말라디악서 강해



2026 신년 사경회에 초대합니다.



2026년 새해에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형제들의 가정에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한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비전에 집중하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비전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말씀의 은혜를 기대하며, 우리는 1월 12일(월)부터 16일(금)까지 매일 저녁 7시 30분에 바셀캠퍼스 본당에서 모입니다.

강사로 섬겨 주실 손상원 교수님은 현재 달라스침례대학교(Dallas Baptist University)에서 성서학을 가르치시는 분이십니다. 그동안 신학교에서 많은 목회자들을 말씀으로 훈련시키는 사명을 감당해 왔습니다. 이번에 귀한 시간을 내주셔서 형제들과 함께 복음의 정수를 담고 있는 갈라디아서 말씀을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이번 기회에 갈라디아서를 체계적이고, 철저하게 잘 정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어른들이 말씀 앞에 겸손히 앉는 시간에, 다이버홀에서 다음 세대 자녀들을 위한 어린이 사경회도(Sonlight Elementary 3-5) 함께 진행됩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 온 가족들이 말씀 위에, 복음 위에 굳게 설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귀한 말씀 축제의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개인적으로 사모하는 마음과 시간과 체력을 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개인적으로 참여할 뿐 아니라, 가족이 함께 참여하고, 순 공동체가 함께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우리 가족에게, 우리 순 식구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함께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만나면, 우리의 비전이 조율되고, 2026년도 빛나는 삶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말씀을 만나며, 비전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권 준 드림

갈라디아서 강해

날짜	강의 개요
12일(월)	갈라디아서 서론(갈 1:1-5)
13일(화)	복음의 변호(1): 간증을 통한 변호(갈 1:6-2:21)
14일(수)	복음의 변호(2): 말씀(성경)을 통한 변호(갈 3:1-4:31)
15일(목)	복음의 변호(3): 삶을 통한 변호(갈 5:1-6:18)
16일(금)	갈라디아서를 통하여 살펴보는 바울 신학

© 본 자료는 사경회에 참석하신 분들에게 개인적인 용도로 제공합니다.
무단 복사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금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강해

복음과 자유



영상 링크

갈라디아서 서론

갈라디아서 1장 1-5절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을 진리로 믿고, 복음을 전하는 것을 지상대사명으로 여긴다. 복음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복음이 무엇인가? 복음은 언제, 어떻게 시작했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아브라함의 언약과 어떤 연관이 있는가? 모세의 율법과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복음이 언약과 율법을 부정하는가, 대체하는가, 아니면 완성하는가?

복음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행위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가르친다. 그렇다면 믿음과 행위는 서로 상반되는 것일까? 믿음은 중요하고 행위는 중요하지 않다는 뜻일까? 나아가서 “의롭게 된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 죄를 용서받아 의롭게 되는 것과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은 서로 어떤 관계가 있을까?

이러한 질문들이 무겁게 여겨질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질문들은 기독교 신앙의 본질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이라면 심각하게 생각해보고, 성경 속에서 그 해답을 찾아봐야 한다.

이러한 질문들을 가장 잘 설명해 주는 성경책이 갈라디아서이다. 복음은 갈라디아서의 주제이다. 갈라디아서는 그 어느 책보다 복음을 강조하고, 설명하고, 변호한다.

갈라디아서는?

1. 사도 바울이 기록한 서신들 중의 하나이다(갈 1:1-2 전반)

- (1) 신약 성경에는 _____ 권의 서신이 포함되어 있다.
- (2) 이 중에 사도 바울이 기록한 서신은 총 _____ 권이다. 히브리서도 바울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 (3) 서신에는 양식이 있다. 이 양식은 시대와 문화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다.

(고대 헬라/로마 시대의 서신 기록과 전달 과정)

- 서신의 종류:
- 종지와 필기구:
- 기록 과정:

- 전달 방법:
- 신빙성과 보안 장치:

(4) 바울 서신은 고대 헬라/로마의 편지 형태와 비슷하며, 몇 가지 독특한 특징들이 있다.

- 바울 서신은 고대 서신들에 비해서 매우 길다. 고대 개인 서신의 글자(단어) 수는 18-209개이다. 반면에 바울 서신의 평균 글자 수는 1,300 자이다. 가장 긴 서신은 로마서이며, 무려 7,114 단어로 구성되었다.
- 바울 서신은 모두 _____ 인 서신이다. 하지만, _____ 공동체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 바울 서신은 모두 _____ 서신이며, _____ 서신이다.
- 바울 서신은 수신자와의 관계와 기록목적에 따라 그 형태, 내용, 표현 방법이 현저하게 다르다.
- 바울 서신은 대부분 서론, 본론, 결론으로 나눌 수 있다.
- 바울 서신의 본론은 종종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눌 수 있는데, 전반부는 _____ 인 내용이고, 후반부는 교훈적 (ethical)인 내용이다. 전반부에는 서술형으로 기술 되었고, 후반부에는 명령어가 자주 등장한다.
- 바울 서신의 서론은 주로 5 가지 요소를 포함한다.
(a) _____, (b) _____, (c) _____, (d) _____, (e) _____
- 서신의 서론은 바울과 수신자와 관계, 서신의 기록 배경과 목적, 서신의 핵심내용을 암시해준다.

(5)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가?

- 바울이 자신을 소개할 때 사용하는 세 개의 명칭(title)이 있다.

(a) _____, (b) _____, (c) _____

명칭이 각각 어떤 느낌을 주는가?

- 바울은 갈라디아에서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가? 어떤 명칭을 사용하는가? 왜 공식적이고, 권위적인 명칭을 사용했을까?
- 자신을 소개하면서 그리스도와 하나님에 대하여 뭐라고 말하는가? 이것이 갈라디아서의 내용에 대하여 어떤 암시를 하는가?
- 바울은 공동 발신인을 언급한다. 누구인가? 왜 이들을 언급했을까?

2. 갈라디아라는 지역에 있던 교회들에 보낸 서신이다(갈 1:2후반).

(1) 갈라디아는 어느 지역인가?

- 현재 터키(튀르키예)에 속한 지역이다.
- 학자들 사이에 두 가지 의견이 있다. **남 갈라디아 설과 북 갈라디아 설이다.**
- 당시의 지리와 역사, 사도행전의 기록, 그리고 갈라디아서의 내용을 분석해보면 남 갈라디아 설이 더 설득력이 있다.

(참고: 교재 뒤쪽에 있는 보조 자료)



(2) 바울이 언제 갈라디아 지역에 교회를 세웠는가?

남 갈라디아 설에 의하면 1차 선교여행 기간에 세웠다. 서기 46-47년 경으로 추정된다. 바울의 1차 선교 사역은 사도행전 13장과 14장에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다.

사도 바울의 1차 선교여행을 지도를 보면서 추적해보자.



사도행전을 중심으로 다음의 질문에 해답을 찾아보자.

- 누가 바울과 동행했는가?
- 어느 도시를 방문했는가? 왜 이 도시들을 방문했을까? 각 도시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가?
- 바울과 그의 일행이 여행한 거리는 얼마나 될까? 어떤 교통수단을 사용했으며, 여행에 소요된 시간은 얼마나 될까?
- 이러한 선교 여행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바울이 겪은 고난은 고린도 후서 11장 23-27절에 잘 나타나 있다.

3. 갈라디아 교회에 문제가 생겨서 쓴 편지이다.

(1) 바울이 1차 선교여행을 마치고 안디옥에 돌아간 후에, 갈라디아 교회들에 문제가 생겼다.

- 어떤 문제가 생겼는가?
- 문제를 일으킨 사람은 누구인가? 한 명인가, 아니면 여러 명인가? 교회 내부 사람인가, 아니면 외부에서 들어온 사람인가?
- 이들이 교회를 어떻게 어지럽혔는가?
- 이들이 바울에 대하여 어떤 부정적인 말을 했는가?
- 이들이 무엇을 가르치고, 어떻게 행동했는가?
- 이들이 어떻게 복음을 변질시켰는가?
-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왜 이들의 말에 쉽게 현혹되었을까?

(2) 교회에 문제가 있다는 소식을 듣고 바울은 어떤 반응을 보였는가?

바울은 복음을 변질시키는 자들에게 매우 분노했고, 잘못된 가르침에 너무나 쉽게 현혹된 성도들을 강하게 책망했다. 그리고 열정적으로 복음을 변호했다. 이러한 바울의 모습은 갈라디아서에 아주 선명하게 나타난다.

- 갈 1:1,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 된 바울은...” -**서신의 초반부터 자신의 사도권을 아주 강하게 변호한다. 그리고 복음의 핵심인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언급한다. 왜 그랬을까? 왜 그래야만 했을까?**
- 갈 1:6-10,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I marvel, I am amazed, I am astonished).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Let him be accursed, Curse be upon him).”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 대한 강한 실망감을 표현하고, 자신이 전한 복음을 변질시킨 자들을 향하여 두 번이나 반복하여 저주를 선언한다.**

- 갈 3:1-3,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 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어리석은 자” 혹은 “무식한 자”이라고 부르며, 그들을 강하게 책망한다.

- 갈 4:12-16,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하므로 원수가 되었느냐?” -과거에는 나를 그렇게 환대를 하더니, 이제 내가 너희의 원수가 되었느냐고 반문한다.

- 갈 5:7-10, “너희가 달음질을 잘 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그 권면은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라.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느니라.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너희를 요동하게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교회를 어지럽히는 자들을 누룩 덩어리로 비유하며, 그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을 선언한다.

- 갈 5:11-12,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한다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박해를 받으리요.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의 걸림돌이 제거되었으리니,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베어 버리기를 원하노라.” -교회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이 스스로를 베어 버렸으면 좋겠다고 단정적으로 말한다.

- 갈 6:17, “이 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나를 더 이상 괴롭게 하지 말라는 엄중한 경고와 함께 서신을 마무리한다.

이와 같이 갈라디아서는 다른 서신에서 찾아볼 수 없는 바울의 극한 감정을 여과 없이 노출한다. 무엇이 바울을 이토록 화나게 만들었을까?

4. 복음의 변질을 막기 위해서 기록한 서신이다.

따라서, 바울이 주장하는 복음의 핵심은 “사람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이다(갈 2:15-16). 이 말씀은 로마서와 함께 종교개혁에 “이신칭의(以信稱義)”라는 신학적 기초석을 제공했다.

5. 갈라디아서는 그 전개방식이 매우 논리적(logical)이고, 변증적(apologetic, defensive)이고, 수사적(rhetorical)이다. 갈라디아서에 나타난 바울은 마치 법정에서 서서 강력하게 진실을 변호하는 변호사(trial lawyer)와 같다.

갈라디아서 1장 5-10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자.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1:6-10).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그들을 힘들게 한 사람들의 문제점을 지적한다. 그리고 왜 자신이 전한 복음만이 참된 것인지 조목조목 증거를 들어가며 설명한다.

자신이 전한 복음이 왜 참된 복음인지 세 가지 방법으로 증명하고, 변호한다:

(1) _____ 변호(1:11-2:21); _____ 변호(3:1-4:31); _____ 변호(5:1-6:10)

바울의 변호에 수사적(rhetorical) 요소들 발견할 수 있다.

(1) Ethos(에토스): 신뢰와 도덕성에 기반한 설득

(2) Pathos(파토스): 감정에 호소하는 설득

(3) Logos(로고스): 논리와 이성에 기반한 설득

결론과 적용

1. 갈라디아서에 얽힌 이야기를 듣고 기록 배경을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되었기를 바란다. 갈라디아서에 나타난 바울의 심정을 좀 더 이해할 수 있게 되었기를 바란다. 복음과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열정과 헌신이 도전이 되었기를 바란다. 갈라디아서가 좀 더 친근하게 다가왔기를 바란다. 갈라디아서를 다시 한번 읽어보고 싶은 마음이 생겼기를 바란다. 갈라디아서를 좀 더 자세히 공부해보고 싶은 마음이 생겼기를 바란다. 그래서 다음 강의를 기대하는 마음이 생겼기를 바란다.

2. 다음의 질문들을 생각해보고, 자신의 생각을 나누어 보자.

- (1) 오늘 강의를 통하여 새롭게 배웠거나 깨달은 것은?
- (2) 갈라디아서에서 말하는 복음의 핵심이 무엇인가?
- (3) 오늘날 무엇이 복음을 변질시키는지 생각해보자.
- (4) 바울이 가졌던 복음에 대한 확신과 열정이 자신에게 있는지 점검해보자.

나와 가정과 일상에서 적용할 내용을 기록해 보세요.

●

●

●



영상 링크

복음의 변호(1)

경험(간증)을 통한 변호(갈 1:6-2:21)

갈라디아서의 본론은 1장 6절에서 시작한다. 가장 먼저 나오는 단어는 “다우마조”라는 동사이다. 한글 성경에는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고 번역되었고, 어순의 차이 때문에 문장의 끝부분에 나온다. 영어 성경에는 “I am astonished” (ESV, NIV, RSV), “I marvel” (NKJV), 혹은 “I am amazed” (NAS)등으로 번역되어 있다. 상당한 실망감이나 당혹감을 나타내는 말이다.

바울이 왜 실망하고 당혹했을까?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잘못된 가르침에 현혹되었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이다.

바울은 서두에서 “자신이 전한 복음 이외에 다른 복음이 없다”고 단호하게 말한다(7절). 그리고 복음을 변질시키는 자들을 강하게 정죄하고(8-9절), 자신을 하나님의 기쁨만 추구하는 그리스도의 종으로 제시한다(10절).

그다음 교회를 어지럽힌 사람들의 가르침이 왜 잘못되었는지, 그리고 자신이 전한 복음이 왜 참된 것인지를 조목조목 논리적으로 설명한다. 먼저 자신의 개심 이후의 행적을 통하여 설명하고(1:11-2:21), 그 다음에 구약 성경을 인용하여 설명한다(3:1-4:31). 자신의 행적을 언급한 이유는 자신이 전한 복음이 사람에게 전해 받거나 배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깨닫게 된 것임을 증명하기 위함이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아브라함과 모세의 율법을 언급한 것은 거짓 교사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임을 자랑하면서 할례와 율법의 행위를 강요했기 때문이다(3:1-4:31).

바울이 언급한 자신의 행적은 다음과 같다: (1)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건(1:11-16), (2) 다메섹과 아라비아에 머물렀던 시간(1:17), (3) 예루살렘에서 베드로와 야고보와의 첫 만남(1:18-20), (4) 길리기아와 수리아 지역에 머물렀던 시간(1:21-24), (5) 예루살렘 재방문(2:1-10), 그리고 (6) 안디옥에서 베드로를 공개적으로 대적한 사건(2:11-14). 바울이 언급한 이러한 행적들은 사도행전의 기록과 연계하여 바울의 삶을 추적하고, 그의 연대기를 구성하는 데 매우 중요한 성서적 자료이다. 무엇보다 갈라디아서를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

갈라디아서 1장 11절에서 2장 21절까지의 말씀을 읽고, 다음을 생각해 보자.

1. 복음의 근원: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에게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깨달은 것이다(갈 1:11-24).

(1)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갈 1:11-16)

- 개심 이전의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나? 그는 왜 교회를 그토록 심하게 박해했을까?(13-14절 참조)
- 바울은 자신이 전한 복음을 어떻게 깨닫게 되었다고 말하는가?(11-12절 참조)
- 12절에서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는 무엇을 말하는가? 16절 말씀과 연계하여 생각해 보자.

참고: “계시”로 번역된 헬라어 단어 “아포칼롭시스”는 “계시”란 뜻 뿐만 아니라, “나타남” 혹은 “출현”이란 의미도 있다. 본문에서는 말씀을 통한 계시보다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나타나심(출현)의 의미가 강하다. 16절에 보면, 바울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자신에게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다고 고백한다. 여기에 사용된 동사가 아포칼롭시스와 어근이 동일하다.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바울에게 나타난 것을 암시한다.

- 바울은 언제, 어디서 개심을 했는가? 다메섹 도상 혹은 다메섹 성 안에서?(참고, 행 9장 1-19절) 이것이 왜 중요할까?
- 바울은 하나님이 자신을 택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했는가?(15-16절)
- 바울은 개심 직후 자신의 혈육과 상의하거나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을 만나러 가지 않았다고 했다. 왜 이 사실을 언급했을까?

참고: 바울의 친족 중에 바울보다 먼저 예수님을 믿은 사람이 있었던 것 같다. 그 예로 로마서 16장 7절에 보면, 안드로니코와 유니아를 “내 친척”이라고 부르고 자신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된 자라고 말한다. 이 외에도 헤로디온(롬 16:11), 누기오, 야손, 소시바더(롬 16:21)를 자신의 친척이라고 불렀다.

(2) 다메섹과 아라비아에 머문 시간(갈 1:17)

개심 후 바울은 곧바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지 않았다. 혈육을 찾아가 자신에게 일어난 일에 대하여 상의하지 않았다. 다메섹과 아라비아에 머물렀다.

- 바울이 다메섹에서 무엇을 했는가? 바울이 다메섹에서 무엇을 했는지 갈라디아서에 나오지 않는다. 하지만, 사도행전 9장 19-25절을 보면 그의 행적에 대한 언급이 있다.
- 바울이 왜 아라비아로 갔을까? 아라비아는 어느 지역을 말하는가? 아라비아에서 무엇을 했을까?

참고: 흔히들 “아라비아(Arabia)” 라 하면 사람이 살지 않는 모래 쌓인 사막 혹은 황량한 광야를 생각한다. 그래서 바울이 개심 후 아무도 살지 않는 광야로 가서 3년 동안 혼자 기도하며 자신을 수양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 아라비아는 세계에서 가장 큰 반도(Peninsula)이며, 오늘날 예멘, 오만, 사우디 아라비아, 쿠웨이트, 그리고 이라크와 요르단의 남부지역을 포함하는 광범위한 지역이다. 아라비아에는 고대부터 큰 나라들이 존재했고, 무역이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바울이 간 곳이 이 넓은 지역 중 어느 곳이었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다. 하지만, 아마도 남쪽에 위치한 나바티안 왕국까지 내려갔을 가능성이 있다. 그 단서를 고린도 후서 11장 32절에 발견할 수 있다: “다메섹에서 아레다(Aretas) 왕의 고관이 나를 잡으려고 다메섹 성을 지켰으나 나는 광주리를 타고 들창문으로 성벽을 내려가 그 손에서 벗어났노라.” 여기서 말하는 아레다(Aretas) 왕은 기원전 9년부터 기원후 40년까지 나바티안 왕국(Nabatean Kingdom)을 통치한 아레다 4세이다. 그는 침례 요한의 목을 멘 유대 왕 헤롯 안티파스(Herod Antipas)의 사위이다. 바울이 개심을 할 당시 아주 영향력 있는 왕이었고, 다메섹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다. 당시 나바티안 왕국은 중국, 인도, 아라비아 남부, 그리고 이집트를 연결하는 무역로를 장악하고 있었다. 오늘날 관광지로 유명한 페트라(Petra)가 바로 이 무역로에 세워진 나바티안 도시이다. 왜 나바티안 왕국의 아레다 왕이 군인들을 다메섹까지 보내어 바울을 체포하려고 했을까? 바울이 한

적한 아라비아 광야에서 혼자 기도만 하고 왔다면 그는 바울을 알지도 못했을 것이고, 체포령을 내리지도 않았을 것이다. 바울이 나바티안 도시에 들어가서 사람들 사이에 갈등을 야기시켰을 가능성이 높다. 어떻게 갈등을 일으켰을까? 아마 그곳에 살고 있던 유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전하면서 갈등을 일으켰을 것이다. 왜냐하면 바울은 다메섹에서 그랬고, 예루살렘에서도 그랬고, 선교를 하는 동안에도 가는 곳마다(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에베소, 데살로니가, 고린도 등) 동일한 문제에 부딪혔다.

(3) 베드로(게바)와 주의 형제 야고보를 처음으로 만남(갈 1:18-20)

- 바울은 예루살렘을 떠난 지 얼마 만에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왔는가?
-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누구와 만났으며, 며칠 동안 그들과 교제했는가?

참고: 게바는 베드로의 아람어식 이름이다(요한복음 1:42). 베드로는 헬라식 이름이고, 그의 히브리식 이름은 시몬이다. 세 개의 이름이 있었다는 것은 세 문화의 영향을 받았다는 증거이다. 성경에 주로 베드로라는 이름이 사용되었다(156번). 하지만, 유일하게 바울은 베드로를 게바라고 불렀다.

본문에 언급된 야고보는 예수님의 형제 중의 한 명이다. 예수님의 12 제자 중의 한 명이었던 야고보가 아니다. 주의 형제 야고보가 언제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지 모른다.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개심했을 가능성이 높다. 그는 짧은 기간 안에 초대 교회의 지도자로 부상했다.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예루살렘 회의의 수장으로 등장한다. 사도행전, 갈라디아서, 그리고 야고보서의 기록을 보면 그가 초대 교회에 큰 영향을 미친 지도자였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다른 사도들이 다 예루살렘을 떠나도 그는 예루살렘에 남아 있었고, 1세기 유대인 역사가 요세푸스(Josephus)의 기록에 의하면 서기 62년에 예루살렘에서 순교 당했다.

- 바울은 예루살렘에 15일 동안 있으면서 무엇을 했는가? 왜 예루살렘을 급하게 떠나게 되었는가? 갈라디아서는 그 이유를 설명하지 않는다. 하지만, 사도행전 9장 26-30절에 보면 그 이유가 나와있다.
- 본문에서 바울이 강조한 것은 개심 후 3년 동안 예루살렘 사도들을 만나지 않았다는 것이다. 3년 후에 예루살렘을 방문해서 베드로와 야고보를 만났지만 그들을 만난 기간이 매우 짧았고(15일), 그들과 깊은 교제를 나누지 못했다는 것이다. 바울은 이 사실을 왜 강조했을까?

(4) 길리기아와 수리아 사역(갈 1:21-24)

- 바울은 예루살렘을 떠나 어디로 갔는가?(갈 1:21; 참조, 행 9:30)
- 바울은 길리기아와 수리아를 돌아다니며 무엇을 했는가?

참고: 누가는 사도행전에서 바울이 다소로 갔다고 기록했다. 그래서 사람들은 흔히 바울이 그의 고향인 다소에 가서 안디옥 교회의 사역자로 초청받을 때까지 조용히 기도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다고 말한다. 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 갈라디아서 1장 21절을 보면, 바울은 길리기아 지역과 수리아 지역을 돌아다니며 폭넓게 복음을 전했고, 그 소문이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과 성도들에게 전해졌다고 기록되어 있다. 다소는 길리기아에 속한 도시였고, 안디옥은 수리아에 속한 도시였다. 바울은 개심 직후부터 안디옥 교회에 초청받기까지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였다. 다메섹, 아라비아, 예루살렘, 길리기아, 그리고 수리아 등에서 폭넓게 복음을 전했다.

2. 복음의 승인: 내가 전한 복음은 예루살렘 사도들도 인정하고, 동의한 것이다(2:1-10).

(1) 바울은 언제 예루살렘을 다시 방문했는가?

참고: 바울은 14년 후에 예루살렘을 다시 방문했다고 말한다. 개심으로부터 14년인지, 첫 방문으로부터 14년인지 정확하게 알 수가 없다. 개심으로부터 14년일 경우에는 사도행전 11장에 언급된 구제 방문(서기 46년)일 가

능성이 높고, 첫 번째 방문 후 14년일 경우에는 사도행전 15장에 언급된 예루살렘 회의(서기 49년 혹은 50년) 참석일 가능성이 높다. 학자들의 의견이 팽팽하게 나누어져 있다. 하지만, 갈라디아서에서 기록된 바울의 말과 당시의 여러가지 역사적인 정황을 고려할 때 구제 방문이었을 가능성이 높다.

- 계시가 언급되었다(갈 2:2). 선지자 아가보가 대기근이 있을 것이라 예언했다. 따라서 안디옥 교회가 구제 헌금으로 모았고, 바울과 바나바는 구제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갔다(행 11:28-30).
- 개인적인 만남이었다(갈 2:2). 구제 헌금을 가지고 갔을 때 개인적으로 만났다. 반면에 예루살렘 회의는 공식적인 모임이었다.
- 가난한 자에 대하여 언급했다(갈 2:10). 구제 방문과 상통한다.
- 이것이 두 번째 예루살렘을 방문한 것이라고 강조했다(첫 번째 방문 3년 후, 두 번째 방문 14년 후). 만약 두 번째 방문이 예루살렘 종교 회의에 참석한 것이었다면 바울은 구제 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갔던 일을 잊어버렸거나 의도적으로 언급을 회피한 것이 된다.

(2) 바울은 누구와 함께 예루살렘에 갔는가? 왜 디도를 언급했는가? 누구를 만났는가? 어떤 대화를 나누었는가? 예루살렘 사도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어떻게 대했는가? 바울이 전한 복음에 대하여 뭐라고 했는가? 바울이 이들과의 만남을 언급한 이유가 무엇이라 생각하는가?

3. 복음의 보호: 내가 전한 복음이 변질되는 것을 막기 위해 베드로를 대적했다(갈 2:11-14).

바울이 안디옥에서 게바(베드로)를 공개석상에서 대적했던 사건을 언급한다.

(1) 안디옥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가?

(2) 야고보에게서 온 사람들은 누구일까?

(3) 베드로가 어떤 행동을 보였는가? 베드로는 왜 야고보에게서 온 사람들을 그토록 의식하고, 그런 행동을 했을까? 베드로의 행동이 왜 문제가 되었을까? 바울이 왜 그토록 화를 내고, 베드로를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대적하고 질책했을까?

(4)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이 사건을 언급한 이유가 무엇일까?

참고: 바울이 베드로를 대적한 사건에 지나친 의미를 부여하는 성서학자들이 있다. 이 사건과 고린도 교회의 분열(고전 14장)을 토대로 초대 교회에 상당한 갈등과 충돌이 있었다고 생각한다. 베드로와 야고보 중심의 유대적 기독교와 바울과 바나바 중심의 이방인 기독교 사이에 심각한 대립과 갈등이 있었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대립과 갈등의 구조 속에서 초대교회의 역사를 설정하고 바울 서신을 읽고 이해한다. 갈라디아서에 언급된 사건은 중요하지만, 바울과 베드로를 영구적으로 갈라놓은 사건은 아니다. 이 일 후에도 바울은 지속적으로 예루살렘을 방문했고, 바울과 베드로는 서로의 사도권과 사역을 인정했고, 동일한 일꾼들(바나바, 실라, 마가 등)이 바울과 베드로 사이를 오가면 사역을 했다. 이러한 사실을 볼 때 바울과 베드로는 대적 관계가 아니라 동역자로 서로 협력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4. 참된 복음: 내가 전한 복음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이다(갈 2:15-21).

바울은 자신이 전한 복음을 간단명료하게 정리하고, 자신의 신앙고백으로 경험을 통한 복음의 변호를 마무리한다.

(1)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될 수 없고,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될 수 있다. 자신은 이방인들과 같은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유대인들도 이 사실을 잘 알고 있다(2:15-16).

(2) 유대인이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되려는 노력을 포기할 경우 이방인들과 같은 죄인이 되는가? 그렇게 될 경우 그리스도가 더 많은 죄인들을 만들어내는 수단이 되는가? 절대 그렇지 않다(2:17).

(3) 바울의 고백: 나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기 위하여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2:19).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박혀 죽었으며, 내 속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그러므로 이제 내가 육신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신을 내어 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2:20). 나는 결코 하나님의 은혜를 폐하지 않는다. 만약 율법으로 의롭게 된다면 그리스도의 죽음은 그 의미를 상실한다(2:21).

참고: 바울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말한다. 갈라디아서에서 믿음과 대조된 것은 일반적인 “선한 행위”가 아니다. “율법의 행위(works of the law),” 곧 율법을 지키는 것을 말한다. 많은 경우에, 바울이 믿음만 강조하고 선행을 무시한 것처럼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 바울은 믿음만 강조하고 선행을 무시한 적이 없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는 하나님의 부르심과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한다고 가르쳤다. 육신의 소욕이 아니라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아야 하고, 자신의 믿음을 사랑으로 표현해야 한다고 가르쳤다. 믿음이 있는 자는 그 믿음이 삶으로 나타나야 한다고 가르쳤다. 따라서, 바울과 야고보의 가르침은 서로 상반되지 않는다. 강조점이 다를 뿐이다.

의롭게 된다는 것은 죄사함을 통한 신분의 변화뿐만 아니라, 관계의 회복을 포함한다. 예수님을 믿고 죄사함을 받아 의로운 사람이 되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 그것은 시작이지 끝이 아니다. 예수를 믿고 의롭게 된 자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다. 따라서, 의로운 삶을 통하여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right relationship)를 지속해야 한다. 이것이 행위 구원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은혜와 믿음으로 죄사함을 얻어 의롭게 됨으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형성한 사람은 성령의 도움을 받아 지속적으로 그리스도의 거룩한 형상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야 한다.

결론과 적용

1. 오늘 말씀 가운데 무엇을 새롭게 깨닫게 되었는가? 자신의 신앙에 어떤 도움이 되었는가?
2. 복음을 전하는 데 개인적인 간증이 왜 중요한가?
3. 갈라디아서 2장 18-21절에 나오는 바울의 신앙 고백을 깊이 묵상하고, 자신에게 어떤 교훈과 도전을 주는지 말해보자.

나와 가정과 일상에서 적용할 내용을 기록해 보세요.

-
-
-



영상 링크

복음의 변호(2)

말씀(성경)을 통한 변호(갈 3:1-4:31)

바울은 갈라디아서 1-2장에서 자신의 경험을 통하여 자신이 전한 복음을 변호했다. 3-4장에서는 구약성경에 언급된 내용을 중심으로 복음을 변호한다. 특별히 아브라함의 언약과 모세의 율법이 복음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보여준다. 성경적, 신학적 변호라 할 수 있다. 본문에는 구약의 말씀이 자주 인용되었다. 따라서, 바울이 성경(구약)을 어떻게 인용하고, 해석하는지를 살펴볼 수 있다.

1. 갈라디아 성도들의 어리석음을 꾸짖음(3:1-5)

성서적 변호에 앞서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의 어리석음을 꾸짖는다.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라고 말한다. 그리고 연속적으로 질문을 던진다. 모두 부정적인 대답을 기대하는 질문들이다. 1장에서 경험을 통한 변호를 하기 전에 자신의 실망감과 당혹감을 표현함으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의 감성에 호소했던 것과 비슷하다. 4장에서 변론 중 갑자기 성도들의 감성에 호소한다(4:12-20).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왜 어리석다고 했을까? 그들이 교육을 받지 못해서 무식하기 때문이 아니다. 영적인 판단이 미숙한 것을 책망한 것이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처형되었다는 사실을 분명히 들었고, 그를 믿음으로 죄와 율법의 율무에서 해방되었다. 성령을 받았고 많은 기적을 경험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너무나 쉽게 잘못된 가르침에 흔들려 그리스도의 죽음을 무의미한 것으로 만들고 있었다. 영적 및 신학적으로 성숙하지 못해서 어리석은 판단을 한 것이다. 오늘날도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이 성숙하지 못하고, 성경에 무지하고, 건전한 신학이 잘 정립되지 않아서 잘못된 가르침(이단 교리)에 쉽게 현혹되는 경우가 있다. 이로 인하여 교회가 큰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다. 갈라디아서에 담긴 사도 바울의 경고와 권면을 귀를 기울이고 경청할 필요가 있다.

참고: 1절에서 “누가 너희를 찌더냐?”라는 표현이 나온다. “찌다”라는 단어가 영어 성경에는 “마귀가 홀리다” 혹은 “마술을 걸다”라는 뜻을 가진 bewitch로 번역되었다. 원래의 의미를 살린 번역이다. 헬라어 단어는 당시 유행하던 마법(witchcraft)과 연관되어 있다. “악한 의도를 가지고 한쪽 눈으로 바라보며(by casting an evil eye) 마법 혹은 최면을 걸어 사람을 홀린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2. 아브라함의 언약과 율법(3:6-4:7)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에서 복음의 뿌리를 아브라함에게서 찾는다. 그리고 율법의 한계성과 율법의 시한적 목적을 설명한다.

바울은 왜 아브라함의 언약과 율법을 언급했을까? 그 이유는 거짓 교사들(유대주의자들)이 아브라함의 혈통을 자랑하고,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언약의 증표인 할례를 받도록 강요하고 유대인과 같이 율법을 지키도록 강요했기 때문이다.

바울은 아브라함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한다. 바울의 견해가 당시 보편적인 유대인들의 생각(해석)과 큰 차이가 있다.

- (1)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2:6; 인용, 창 15:6). 율법을 지킴으로 의롭게 된 것이 아니다. 아브라함 시대에는 율법이 없었다. 율법은 430년 후에 생겼다. 따라서, 존재하지 않은 율법이 어떻게 아브라함을 의롭게 만들 수 있었겠는가?
- (2) **아브라함의 자손(후손)은 그와 같이 믿음을 가진 자이다**(3:7). 아브라함의 육신적인 혈통에서 태어났다고 무조건 그의 자손이 되는 것이 아니다. 혈통을 중요시 여긴 당시 유대인들에게 충격적인 발언이었을 것이다.
- (3) **아브라함의 축복 속에는 이미 이방인들이 포함되어 있었다**(3:8-9).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다(창 12:3; 18:18). 모든 족속은 이방인들을 포함한다. 따라서, 하나님의 약속은 혈통에 의한 유대인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진 모든 이방인들이 포함되어 있다. 이 또한 자신들만 선민이고 자신들만 아브라함의 축복을 소유했다고 생각한 당시 유대인들에게 충격적인 발언이었을 것이다.
- (4) **율법의 행위에 의존하는 자는 “율법의 저주” 아래 있다**(3:10). 따라서, 누구도 율법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될 수 없다(3:11). 이를 증명하기 위해서 신명기 27장 26절, 하박국 2장 4절, 그리고 신명기 27장 26절 말씀을 인용한다.
- (5) **그리스도가 율법의 저주가 되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믿는 자들을 율법의 저주에서 구속하셨다**(3:13). 이 부분에서 바울은 신명기 21장 23절 말씀을 인용한다.
- (6)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의 축복이 믿는 모든 자들(이방인들)에게 임함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성령의 약속을 받게 된다**(3:14).
- (7) **하나님의 약속은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에게 주어졌는데, 후손은 단수로 사용되었다. 곧 한 사람을 의미하고, 이 한 사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다**(3:15-16). 즉, 아브라함의 축복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족속(이방)들에게 전해진다.
- (8) **430년 후에 온 율법이 하나님이 인치신 언약을 폐기할 수 없다**(3:15-18).
- (9) **아브라함의 유산은 율법이 아니라, 약속으로 주어진 것이다**(3:18).
- (10) **그러면 하나님이 율법을 왜 주셨을까? 그 목적이 무엇인가?**
 - 율법은 죄(transgression)로 인하여 추가되었으며, 약속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가 올 때까지 유효하다(3:19-20).
 - 율법은 하나님의 약속을 부정하지 않는다(3:21-22).
 - 우리(유대인들)는 믿음(그리스도)이 오기까지 몽학 선생(초등교사/후견인)인 율법의 보호 아래 있었다(3:23-25).
 - 믿음(그리스도)이 온 이후에는 더 이상 율법 아래 있지 않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며,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었고, 아브라함의 후손과 약속의 상속자가 되었다(3:26-28).
 - 믿는 자는 더 이상 종이 아니라, 아들이며 상속자이다(4:1-7).

참고: 바울은 율법을 파이다고고스라 불렀다(3:24). 개역 성경에는 “몽학 선생”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개역개정 성경에는 “초등교사”로 번역을 했다. 영어 성경은 “tutor,” “schoolmaster,” “guardian,” “disciplinarian,” “custodian” 등으로 다양하게 번역했다. 그만큼 번역이 쉽지 않다는 뜻이다. 그 이유는 이 직분이 고대 사회에 존재했으나 현대 사회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 단어는 복합 명사이다. 어린 아이를 의미하는 파이다온과 인도자 혹은 안내자란 뜻을 가진 아고고스를 합성하여 만든 단어이다. 즉, 파이다고고스는 어린 아이를 지도, 보호, 인도, 혹은 안내하는 자를 가리킨다. 고대 사회에서 주로 주인의 전적인 신뢰를 받은 종이나 하인이 이 역할을 감당했다. 그의 역할은 주인의 아들이 성인이 될 때까지 통제하고, 보호하고, 안내하고, 교육하는 것이었다. 아들이지만 어릴 때는 아들의 권리를 다 행사할 수 없다. 종의 신분을 가진 파이다고고스의 보호와 통제 아래 있어야 하고, 그의 지도와 훈계를 받아야 했다. 성인이 되면 그의 보호를 벗어나 아들과 상속자로서 권리를 행사하게 된다. 바울은 율법의 역할을 이러한 파이다고고스의 역할에 비교해서 설명한다.

3.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향한 바울의 사랑(4:8-20)

바울은 다시 갈라디아 성도들의 감성에 호소한다. 바울이 처음 그들을 방문해서 복음을 전했을 때 그들이 바울을 어떻게 대했는지를 언급하면서 무엇이 그들을 변하게 했는지 묻는다. 그리고 그들을 향한 자신의 변함없는 사랑을 확인하고, 그들을 위하여 다시 해산의 수고를 감당하겠다고 말한다.

- (1)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복음을 믿기 전에 어떤 삶을 살았는가?(4:8-10)
- (2) 바울이 무엇을 염려하는가?(4:11)
- (3) 과거에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어떻게 대했는가?(4:12-15)
- (4)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변한 것이 누구의 책임인가?(4:13, 17)
- (5)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향한 자신의 변함없는 사랑을 어떻게 표현하는가?(4:18-20)

참고: 바울은 자신의 몸에 질병이 있었다고 말한다. 고린도 후서 12장 7-10절에도 자신의 몸에 자신을 고문하는 “가시” 곧 “사단의 사자”(a messenger of Satan)가 있다고 말한다. 바울의 몸에 있었던 질병 혹은 가시가 무엇이었는지 정확하게 알 수 없다. 많은 추측들이 있다. 분명한 것은 바울에게는 육신의 장애 혹은 질병이었으며, 이것은 다른 사람들의 눈에 쉽게 띄었다.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 눈이라도 빼서 나에게 주었으리라”(4:15)는 말과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6:11)는 표현을 근거로 바울은 눈에 문제(안질?)가 있었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다. 그의 장애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바울을 멸시할 수 있고, 그가 전하는 복음을 받아들이는데 걸림돌이 될 수 있었다. 하지만, 갈라디아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오히려 바울을 천사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따뜻하게 대했다.

2세기경에 기록된 외경에 **바울과 테클라의 행전**(Acts of Paul and Thecla)이란 책에 바울의 외모가 묘사되어 있다. 이 책은 남부 갈라디아(비시디안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를 배경으로 기록되었다. 이 책의 첫 부분에 보면 오네시브로스(Onesiphorus)라는 사람이 사도 바울이 이고니온으로 온다고 해서 자신의 집으로 초청을 했다. 루스드라까지 마중을 가서 King's Highway에서 사도 바울을 처음으로 보고 그때의 모습을 다음과 같이 묘사했다: “그가 바울이 오고 있는 것을 보았는데, 바울은 키가 작고, 대머리에 다리가 휘었으나 몸 상태는 좋았고, 두 눈썹이 붙었으며, 약간 매

부리코에, 친절함이 가득했다. 사람의 모습이었으나, 천사의 얼굴을 가졌다.” 그대로 믿을 수 있는 신빙성이 높은 기록은 아니지만, 어쨌든 바울의 외모가 그리 출중하지는 않았던 것 같다. 이 책의 저자가 갈라디아서 4장에 기록된 바울의 말에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다.

4. 하갈과 사라를 통한 우화적 설명(4:21-31)

마지막으로 바울은 아브라함의 아내였던 사라(본 부인)와 하갈(여종), 그리고 그들에게서 태어난 약속의 아들 이삭과 종의 아들 이스마엘을 통하여 옛 언약과 새 언약, 율법과 성령, 자유인과 종의 신분을 대조적으로 설명한다.

(1) 우화적 해석:

아브라함의 아내	신분	자녀	상징
사라	자유인	이삭(약속으로 태어남)	위에 있는 예루살렘 = 새 언약 = 자유
하갈	종	이스마엘(육신을 따라 태어남)	시내 산(현재의 예루살렘) = 옛 언약 = 율법

(2) 적용:

- 종의 아들(이스마엘)이 자유인의 아들(이삭)을 핍박했다. 이와 같이 육체를 따라 난 자(유대주의자들)가 성령을 따라 난 자(갈라디아 교회 성도들)를 핍박했다.
-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종과 그의 아들을 쫓아내라고 명하셨다. 종의 아들이 자유인의 아들과 함께 상속을 물려받을 수 없다고 하셨다.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유대주의자들(거짓 교사들)을 추방하라는 암시를 한다.
- 믿는 자는 종의 자녀가 아니라 자유인의 자녀이다.

결론과 적용

1. 오늘 강의를 통하여 새롭게 깨달은 것 혹은 나에게 도움이 된 것이 있으면 말해보자.
2.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은혜)이 아브라함의 언약과 모세의 율법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해보자.
3. 사도 바울은 성경 말씀(구약)에 매우 익숙해 있었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씀 속에서 이해하고, 설명했다. 이것을 근거로 신앙생활에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나의 신앙을 어떻게 말씀 위에 세울 수 있을지 서로의 생각과 계획을 말해보자.

나와 가정과 일상에서 적용할 내용을 기록해 보세요.

-
-
-



영상 링크

복음의 변호(3)

삶을 통한 변호(갈 5:1-6:10)

사도 바울의 서신은 대부분 이중적인 구조로 되어있다.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눌 수 있다. 전반부는 주로 신학적(교리적) 내용이다. 즉, 믿는 자가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사람이 되었는지를 설명해준다. 따라서, 문장이 주로 서술형이다. 후반부는 윤리적인 권면이다. 전반부에서 설명한 교리적인 내용을 기초로 그리스도인들이 주 안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설명해준다. 따라서, 윤리적인 부분을 시작할 때 “그러므로” 라는 접속사가 자주 등장하고(예, 롬 12:1, 갈 5:1, 엡 4:1, 골 3:1), “...하라” 혹은 “...하지 말라”는 명령문이 많이 등장한다. 갈라디아서의 경우 14장은 교리적인 내용이고, 56장은 윤리적인 내용이다.

갈라디아서 56장에 포함된 바울의 핵심적인 권면은 다음과 같다.

1. 그리스도가 너희를 자유롭게 했으니,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메지 말라!(5:1-12).

할례는 사람을 구속하는 멍에이다. 그리스도가 이 멍에를 벗겼는데 할례를 받으면 다시 멍에를 메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그리스도가 하신 일이 무의미하게 된다. 할례를 강요하는 자들은 누룩과 같은 존재들이기 때문에 절대 그들을 따르면 안 된다. 이제 그리스도인에게는 할례나 무할례가 문제가 아니다. 중요한 것은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다 (faith working through love).

참고: 초대 교회에서 이슈가 된 할례 문제는 이방인 선교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했을 경우, 할례를 받아야 하느냐 받지 않아도 되느냐는 문제이다. 유대인에게는 해당이 되지 않는 문제이다. 왜냐하면 유대인 남자는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유대인 성인은 이미 할례를 받은 자들이다.

2. 자유로 부름을 받았으니, 자유를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고 사랑으로 서로 종 노릇 하라(섬기라)!(5:13-15).

믿는 자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얻게 된 자이다. 자유로 부름을 받은 자들이다. 이 자유는 방종을 의미하지 않는다. 자기의 욕심을 따라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뜻이 아니라, 자유인의 신분이지만 스스로 다른 종이 되어 사람을 섬기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

3. 육체의 소욕(desires)이 아니라, 성령의 소욕(desires)을 따라 살라!(5:16-26).

- (1) 구원은 이미 이루어졌으나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다(Already but Not Yet):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도 여전히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살아간다. 하늘에 속한 자이지만 여전히 이 땅의 시민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지만 그의 속에는 여전히 옛 사람의 습성이 남아 있다. 따라서, 유혹과 갈등이 있다.
- (2) 그리스도인은 육체의 소욕이 아니라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아야 한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의 소욕과 상충한다. 그리스도인은 육체의 소욕이 아니라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아야 한다.
- (3)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사는 자와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사는 자의 차이는 그 삶의 열매를 보면 알 수 있다.
 -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사는 자의 삶에는 다음과 같은 특징들이 나타난다: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 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 짓는 것, 분열, 이단, 투기, 술 취함, 방탕함 등이다.
 -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사는 자의 삶에는 다음과 같은 열매가 있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등이다.

참고: 바울 서신 후반부에 보면 “...를 하라” 혹은 “...를 하지 말라”는 권면이 자주 등장한다.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행해야 할 것들을 덕목(virtues)이라 하고,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악목(vices)이라 한다. 한 서신에 모든 덕목과 악목들을 모두 나열하지 않는다. 편지를 받는 개인 혹은 교회에 필요한 것들을 선택적으로 언급한다.

4. 자신을 먼저 돌아보고, 서로의 짐을 나누어 지라!(6:1-10). 심는 대로 거두리라. 따라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모든 사람에게 선을 행하되, 특별히 믿음의 가정에 그리하라.

나와 가정과 일상에서 적용할 내용을 기록해 보세요.

-
-
-



영상 링크

갈라디아서를 통하여 살펴보는 바울 신학

1. 갈라디아서에 사용된 핵심 단어들

- 하나님(31 번), 그리스도(38번), 예수(17 번), 주(6 번), 성령(18번)
- 복음(7번), 복음을 전하다(7번)
- 믿음(22 번), 믿다(4번)
- 율법(32법), 행위(8번)
- 약속(14번), 언약(3번)
- 의(4번), 의롭게 되다(8번)
- 할례(7번), 무할례(3번), 할례를 받다(6번)
- 십자가(3번), 십자가에 달리다(3번)
- 자유(4번), 자유롭게 되다(6번)
- 육체(18번), 죄(3번), 중(4번), 종살이(2번), 종살이하다(4번)
- 창조(1번), 세대(3번), 하나님의 나라(1번), 사랑(3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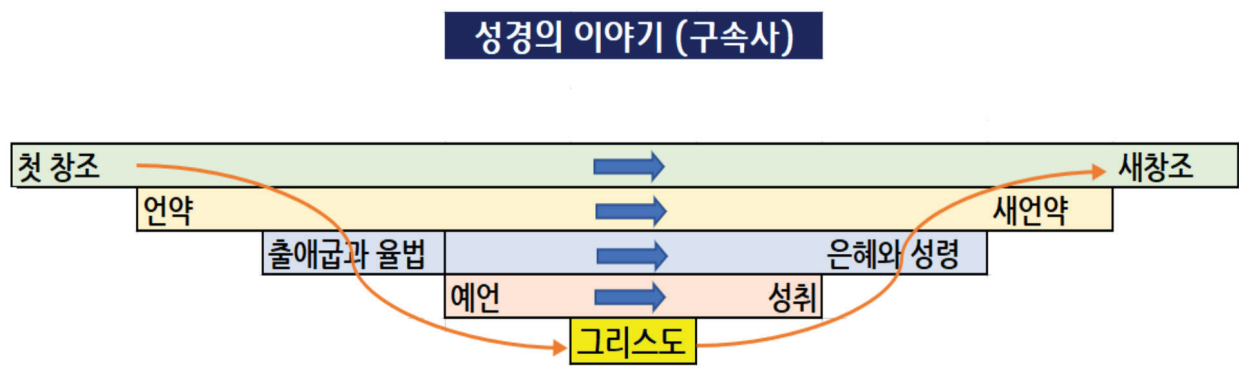
2. 복음의 근원과 핵심

3. 복음과 언약의 관계

4. 복음과 율법의 관계

5. 믿음과 행위의 관계

6. 갈라디아서를 통하여 바라보는 바울 신학의 큰 그림



참고 자료: 갈라디아서의 서론적 요소들

갈라디아서는 사도 바울이 기록한 주요 서신들 중의 하나이다. 바울의 이방 선교와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들이 잘못된 교리에 현혹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기록하였다. 핵심 내용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복음이다. 매우 논리적이고 체계적이며, 복음을 향한 바울의 확신과 열정, 교회를 향한 그의 마음을 잘 보여준다. 복음을 변호하는 과정에 바울의 격한 감정을 드러내기도 한다.

가. 발신인

갈라디아서 1장 1절에서 사도 바울이 발신인으로 명시되어 있다. 바울의 저작권을 의심하거나 부인하는 학자들이 거의 없다.

나. 수신인

갈라디아서 1장 2절에 “갈라디아의 교회들에게” 라고 수신자가 명시되어 있다. “갈라디아”라는 지명이 정확하게 어디를 지칭하는지 학자들 사이에 많은 논쟁이 있다. 크게 두 가지 주장이 있다. “북 갈라디아 설”(North Galatian Hypothesis)과 “남 갈라디아 설”(South Galatian Hypothesis)”이다.

- **북 갈라디아 설:** 원래 갈라디아라는 말은 켈트(Celts, Gauls) 인종이 살고 있던 지역, 곧 현재 터키의 중북부 지역을 지칭했다(지도 참조). 바울이 2차 선교여행 기간에 이곳에 교회를 세웠고, 그곳에 있는 교회들에게 편지를 보냈다고 믿는 것이 “북 갈라디아 설”이다. 하지만, 성경에는 바울이 북 갈라디아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다는 명확한 기록이 없다. 단, 사도행전 16장 6절과 18장 23절에 근거해서 바울이 2차와 3차 선교 여정 때 북쪽 갈라디아를 지나갔다고 추정할 수 있다. 하지만, 사역을 했다는 아무런 언급이 없다.



- **남 갈라디아 설:** 기원전 25년경,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행정구역을 개편하면서 갈라디아라는 지역을 크게 확장했다. 바울 당시에 갈라디아라는 행정구역은 켈트 인종이 중심을 이룬 북쪽 갈라디아 뿐만 아니라, 문화가 개방되고 교통이 발달된 남부지역(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포함)을 포함했다. 따라서, 바울이 말하는 갈라디아는 남 갈라디아이며, 갈라디아서는 남부 갈라디아에 세워진 교회들에게 보낸 편지라는 주장이다. 바울이 1차 선교 기간 중에 남부 갈라디아의 도시들(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을 방문해서 그곳에 교회들을 세운 기록과 그 이후에 다시 방문하여 사역한 기록이 사도행전에 매우 자세하게 나타나 있다(행 13:13-14:28; 16:1-5).

여러가지 성경적, 역사적, 고고학적 자료와 정황을 고려할 때 남 갈라디아 설이 더 설득력이 있다.

다. 기록연대

갈라디아를 어디로 보는지에 따라 기록연대가 약간 달라진다. 북 갈라디아 설을 옹호하는 학자들은 대개 갈라디아서가 바울의 2차 선교여행(서기 50-53년) 이후에 기록된 것으로 여긴다. 따라서, 그 기록연대를 서기 53-56년 사이로 추정한다.

남 갈라디아 설을 옹호하는 학자들은 대개 갈라디아서가 바울의 1차 선교여행(서기 47-48년) 직후, 예루살렘이 종교 회의 직전에 기록된 것으로 여긴다. 따라서, 그 기록연대를 서기 48년 혹은 49년으로 본다. 사도행전과 갈라디아서에 나타난 여러가지 내적 요소들을 고려해 볼 때 갈라디아서가 예루살렘 종교회의(서기 49년 혹은 50년) 이전에 기록되었을 확률이 높다. 남 갈라디아 설을 옹호하지만 기록연대를 예루살렘 종교회의 이후로 보는 학자들도 있다.

갈라디아서를 언제, 어느 지역에 있는 교회에 보냈는지 아는 것은 서신을 왜, 어떤 목적으로 기록했는지 당시의 상황을 파악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 그리고 이러한 역사적 상황에 대한 이해는 서신의 내용을 해석하는 데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라. 기록동기와 목적

사도 바울이 자신의 목숨을 걸고 정말 힘들게 세운 갈라디아 교회에 유대주의자들(Judaizers)이 침투해서 교회에 큰 분란을 일으켰다. 유대주의자들은 그리스도인이라 자칭했지만, 이들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유대인들과 같이 할례를 받고 모세의 율법을 따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의 주장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되며, 이방인들이 할례를 받을 필요가 없다”는 바울의 가르침과 상충했다. 이들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바울의 권위를 도전했고, 자신들이 예루살렘의 사도들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주장했으며,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바울의 복음은 잘못된 것 혹은 완전하지 못한 것이라고 가르쳤다. 이로 인하여, 신앙이 성숙되지 못하고 신학(교리)이 정립되지 않았던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큰 혼돈에 빠졌고, 교회들이 큰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다. 당시 수리아 안디옥에 머물고 있던 바울이 이 소식을 들었다. 그는 크게 분노했다. 당장 갈라디아로 가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는 사정이 있었던 것 같다. 따라서, 자신이 유대주의자들로부터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편지를 썼다. 이 편지가 바로 갈라디아서이다.

1. 거짓 교사들의 정체와 가르침

갈라디아서는 잘못된 가르침을 통하여 복음을 변질시키고 교회를 어지럽힌 사람들을 대적하여 복음의 본질을 지키고 교회를 바로 세우기 위하여 기록된 서신이다. 따라서, 이들을 책망하고 이들과 논쟁하는 내용이 주를 이룬다. 이러한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바울이 대적한 자들이 누구인지, 그들이 어떻게 복음을 변질시켰는지, 성도들에게 무엇을 요구했는지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아쉽게도 바울이 한 말은 성경에 남아 있지만 상대방(유대주의자들)이 한 말은 기록으로 남아 있지 않다. 따라서, 우리는 바울의 기록을 보고 그들의 정체와 가르침을 역추적해야 한다.

갈라디아서에 나타난 이들의 정체와 특징은 다음과 같다.

- (1) 갈라디아 교회 내부 사람이 아니라, 외부에서 들어온 자들이다(2:4). 여러 지역을 순회하며 포교 활동을 한 것 같다.
- (2) 유대인일 가능성이 높다.
- (3) 유대인의 혈통과 전통을 자랑했고, 육신적인 것들을 과시했다.
- (4) 예루살렘 사도들과의 친분을 과시했다.
- (5)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 여겼으나, 바울은 그들을 거짓 형제라고 불렀다(2:4).
- (6) 바울의 영향력을 약화시키기 위하여 바울의 사도권을 공격했다.
- (7)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키도록 강요했다. 따라서, 이들을 흔히 “유대주의자(Judaizers)”라고 부른다.

할례와 율법을 지키는 문제는 이방 선교가 시작되면서 초대교회의 핵심 이슈로 부상했다. 이것은 바울의 이방 선교의 미래를 결정할 수 있는 중요한 사안이었다. 이 문제는 갈라디아 교회에 국한되지 않았다. 다른 이방 교회들도 동일한 문제에 봉착했다. 이방 선교의 발판을 제공한 안디옥 교회도 이 문제로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결국 사도들과 교회의 대표들이 예루살렘에서 모여 이 문제를 상의하였고,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할례를 받지 않아도 된다고 최종 결론을 내렸다. 이로써 이방 선교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되었다.

마. 변증방법

갈라디아서에 등장하는 바울은 마치 법정에서 의뢰인을 변호하는 변호사 같다.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그들을 힘들게 한 유대주의자들을 강하게 공격하고, 그들의 문제점을 지적한다. 그리고 왜 자신이 전한 복음이 참된 것인지 조목조목 증거를 들어가며 증명한다.

바울은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그의 복음을 자신의 경험(1장 6절-2장 21절)과 성경을 통하여(3장 1절 - 4장 31절) 변호한다. 그리고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설명해준다(5장 1절 - 6장 10절). 바울의 주장(복음의 변호)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간증을 통한 변호: 자신의 사도권과 자신이 전한 복음은 사람에게서 나온 것이나 배운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나타나심과 하나님의 계시로 깨닫게 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2. 성경을 통한 변호: 하나님의 언약을 받아 축복의 근원이 된 아브라함도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 율법은 아브라함 당시 존재하지도 않았다. 존재하지 않은 율법의 행위로 아브라함이 어떻게 의롭게 될 수 있었겠는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받은 할례는 언약의 증표이지 의롭게 되는 도구가 아니다. 무엇보다 아브라함의 축복은 유대인들만 위한 것이 아니다. 그 속에 이미 이방인들이 포함되어 있었다. 그럼 율법은 왜 주어졌는가? 인간의 죄 때문이다. 죄인을 의롭게 하는 수단이 아니다.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몽학 선생(tutor, guardian, steward, or custodian)의 역할을 감당했다. 따라서, 약속된 예수님이 오신 후에는 그 역할이 종료되었다.
3. 삶을 통한 변호: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이 선한 행위를 무시해도 된다는 뜻이 아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는 육체의 소욕이 아니라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아야 하며, 믿음에 부합하는 행동(열매)을 수반해야 한다.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자유롭게 된 자는 그 자유를 방종의 기회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사역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

바. 내용요약

서론(1:1-5)

1. 발신인(1:1-2a) - 사도 바울
2. 수신인(1:2b) - 갈라디아의 교회들
3. 첫인사(1:3-5) -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본론(1:6-6:10)

1. 복음을 변질시키는 자에 대한 바울의 경고(1:6-10)

- (1) 잘못된 복음에 현혹되었다는 소식에 놀람(1:6)
- (2) 다른 복음은 없음을 단언함(1:7)
- (3) 복음을 변질시키는 자들을 저주함(1:8-10)

2. 자신의 경험(간증)을 통한 복음의 변호(1:11-2:21)

- (1) 자신이 전한 복음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난 것임(1:11-24)
- (2) 자신이 전한 복음은 예루살렘 사도들도 인정한 것임(2:1-10)
- (3) 자신이 전한 복음이 변질되지 않도록 베드로를 질책함(2:11-14)
- (4) 자신이 전한 복음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가르침(2:15-21)

3. 성경을 통한 복음의 변호(3:1-4:31)

- (1) 갈라디아 성도들의 어리석음을 꾸짖음(3:1-5)

(2) 아브라함에 호소(3:6-18)

-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고, 믿는 자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다(3:6-8).
- 믿음이 있는 모든 자는 아브라함과 함께 축복을 누린다(3:9).
- 율법의 행위에 의존하는 자는 “율법의 저주” 아래 있다(3:10-12).
- 그리스도가 스스로 저주가 되심으로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구속하셨다(3:13).
-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의 축복이 믿음이 있는 이방인들에게 임한다(3:14).
- 나중에 주어진 율법이 먼저 세워진 언약을 폐기하지 못한다(3:15-18).
- 아브라함의 약속은 그의 한 사람의 후손인 그리스도에게 주어졌다(3:16).

(3) 약속과 율법(3:19-4:7)

- 율법은 죄(transgression)로 인하여 추가되었으며, 약속의 후손이 올 때까지 유효하다(3:19-20).
- 율법은 하나님의 약속을 부정하지 않는다(3:21-22).
- 우리는 믿음이 오기 전까지 몽학 선생(초등교사/후견인)인 율법 아래 있었다(3:23-25).
- 믿음이 온 이후에는 더 이상 율법 아래 있지 않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며,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었고, 아브라함의 후손과 약속의 상속자가 되었다(3:26-28).
- 믿는 자는 더 이상 종이 아니라, 아들과 상속자이다(4:1-7)

(4)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향한 바울의 사랑(4:8-20)

-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의 예전의 모습(4:8-11)
-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바울에게 보여준 사랑(4:12-15)
-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향한 바울의 사랑(4:16-20)

(5) 하갈과 사를을 통한 우화적 설명(4:21-31)

- 아브라함에게 두 명의 아내(사라, 하갈)가 있었고, 이들을 통하여 약속의 아들 이삭과 종의 아들 이스마엘이 태어났다(4:21-23).
- 하갈은 모세의 언약(율법)을, 사라는 새 언약을 상징한다(4:24-27).
- 종의 아들이 자유인의 아들(이삭)과 함께 기업을 물려받을 수 없으며, 믿는 자는 종의 아들이 아니라, 자유인의 아들이다(4:28-31).

4. 삶을 통한 복음의 변형(5:1-6:10)

- (1) 그리스도로 자유롭게 된 자는 종의 멍에를 다시 메지 말라(5:1-12).
- (2) 자유를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기회로 여기라(5:13-15).
- (3) 육체의 소욕이 아니라,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라(5:16-26).
- (4) 자신을 먼저 돌아보고, 서로의 짐을 나누어 지라(6:1-10).

결론(6:11-18)

1. 자필 인사(6:11)
2. 거짓 교사들에 대한 마지막 경고(6:12-17)
3. 마지막 인사와 축도(6:18)



갈라디아서

1장

1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 된 바울은
2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3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4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5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6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7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8 그러나 우리가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9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10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라 하나님께 좋게 하라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라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11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12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13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14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연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이 있었으나
15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16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17 또 나보다 먼저 사도 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왔노라
18 그 후 삼 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십오 일을 머무는 동안
19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20 보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로다
21 그 후에 내가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이르렀으나
22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의 교회들이 나를 얼굴로는 알지 못하고
23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려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 함을 듣고
24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2장

1 십사 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나니
2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달음질하는 것이나 달음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3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4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 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5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6 유력하다는 이들 중에 (본래 어떤 이들이든지 내게 상관 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나니) 저 유력한 이들은 내게 의무를 더하여준 것이 없고

7 도리어 그들은 내가 할례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믿음과 같은 것을 보았고

8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신 이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9 또 기둥 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10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11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 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12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13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하므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14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네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15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16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 썩어가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17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나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18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19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20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나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21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폐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3장

1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 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찢더나

2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나 혹은 듣고 믿음으로나

3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나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4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5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나 혹은 듣고 믿음에서나

6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매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7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8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9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10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바 누구든지 율법 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11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

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라

12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13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14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15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폐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16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네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17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사백삼십 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18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라

19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하므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20 그 중보자는 한 편만 위한 자가 아니나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21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22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에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23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간헐느니라

24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

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25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다

26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27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28 너희는 유대인이냐 헬라인이냐 종이냐 자유인이냐 남자인지 여자인지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29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4장

1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2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3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 노릇 하였더니

4 때가 차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5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6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با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7 그러므로 네가 이 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8 그러나 너희가 그 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 노릇 하였더니

9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 노릇 하려 하느냐

10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11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12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13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악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14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15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16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하므로 원수가 되었느냐
 17 그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열심 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라
 18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으로 사모함을 받음은 내가 너희를 대하였을 때뿐 아니라 언제든지 좋으니라
 19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20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언성을 높이려 함은 너희에 대하여 의욕이 있음이라
 21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22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났다 하였으며
 23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났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24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시내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25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 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 노릇하고
 26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27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산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 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28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29 그러나 그 때에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30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31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5장

1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메지 말라
 2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3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4 율법 안에서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5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6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써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7 너희가 달음질을 잘 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8 그 권면은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라
 9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느니라
 10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너희를 요동하게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11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한다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박해를 받으리요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의 걸림돌이 제거되었으리니
 12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베어 버리기를 원하노라
 13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로 종 노릇 하라

14 온 율법은 네 이웃 사랑하기를 네 자신 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15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16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17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18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19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20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21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22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화평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23 온유와 절제니 이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24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25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26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6장

1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2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3 만일 누가 아무 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4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

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5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6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7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8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9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10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11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12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역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라

13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14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15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 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16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17 이 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18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GALATIANS 1

Greeting

1 Paul, an apostle—not from men nor through man, but through Jesus Christ and God

the Father, who raised him from the dead— 2 and all the brothers who are with me,

To the churches of Galatia:

3 Grace to you and peace from God our Father and the Lord Jesus Christ, 4 who gave himself for our sins to deliver us from the present evil age, according to the will of our God and Father, 5 to whom be the glory forever and ever. Amen.

No Other Gospel

6 I am astonished that you are so quickly deserting him who called you in the grace of Christ and are turning to a different gospel— 7 not that there is another one, but there are some who trouble you and want to distort the gospel of Christ. 8 But even if we or an angel from heaven should preach to you a gospel contrary to the one we preached to you, let him be accursed. 9 As we have said before, so now I say again: If anyone is preaching to you a gospel contrary to the one you received, let him be accursed.

10 For am I now seeking the approval of man, or of God? Or am I trying to please man? If I were still trying to please man, I would not be a servant of Christ.

Paul Called by God

11 For I would have you know, brothers, that the gospel that was preached by me is not man's gospel. 12 For I did not receive it from any man, nor was I taught it, but I received it through a revelation of Jesus Christ. 13 For you have heard of my former life in Judaism, how I persecuted the church of God violently and tried to



Galatians_esv link

destroy it. 14 And I was advancing in Judaism beyond many of my own age among my people, so extremely zealous was I for the traditions of my fathers. 15 But when he who had set me apart before I was born, and who called me by his grace, 16 was pleased to reveal his Son to me, in order that I might preach him among the Gentiles, I did not immediately consult with anyone; 17 nor did I go up to Jerusalem to those who were apostles before me, but I went away into Arabia, and returned again to Damascus.

18 Then after three years I went up to Jerusalem to visit Cephas and remained with him fifteen days. 19 But I saw none of the other apostles except James the Lord's brother. 20(In what I am writing to you, before God, I do not lie!) 21 Then I went into the regions of Syria and Cilicia. 22 And I was still unknown in person to the churches of Judea that are in Christ. 23 They only were hearing it said, "He who used to persecute us is now preaching the faith he once tried to destroy." 24 And they glorified God because of me.

GALATIANS 2

Paul Accepted by the Apostles

1 Then after fourteen years I went up again to Jerusalem with Barnabas, taking Titus along with me. 2 I went up because of a revelation and set before them(though privately before those who seemed influential) the gospel that I proclaim among the Gentiles, in order to make sure I was not running or had not run in vain. 3 But even Titus, who was with me, was not forced to be circumcised, though he was a Greek. 4 Yet because of false brothers secretly brought in—who slipped in to spy out our freedom that we have in Christ Jesus, so that they might bring us into slavery— 5 to them

we did not yield in submission even for a moment, so that the truth of the gospel might be preserved for you. 6 And from those who seemed to be influential(what they were makes no difference to me; God shows no partiality)—those, I say, who seemed influential added nothing to me. 7 On the contrary, when they saw that I had been entrusted with the gospel to the uncircumcised, just as Peter had been entrusted with the gospel to the circumcised 8(for he who worked through Peter for his apostolic ministry to the circumcised worked also through me for mine to the Gentiles), 9 and when James and Cephas and John, who seemed to be pillars, perceived the grace that was given to me, they gave the right hand of fellowship to Barnabas and me, that we should go to the Gentiles and they to the circumcised. 10 Only, they asked us to remember the poor, the very thing I was eager to do.

Paul Opposes Peter

11 But when Cephas came to Antioch, I opposed him to his face, because he stood condemned. 12 For before certain men came from James, he was eating with the Gentiles; but when they came he drew back and separated himself, fearing the circumcision party. 13 And the rest of the Jews acted hypocritically along with him, so that even Barnabas was led astray by their hypocrisy. 14 But when I saw that their conduct was not in step with the truth of the gospel, I said to Cephas before them all, “If you, though a Jew, live like a Gentile and not like a Jew, how can you force the Gentiles to live like Jews?”

Justified by Faith

15 We ourselves are Jews by birth and not Gentile sinners; 16 yet we know that a person is not justified by works of the law but through faith in Jesus Christ, so we also have believed in Christ Jesus, in order to be

justified by faith in Christ and not by works of the law, because by works of the law no one will be justified.

17 But if, in our endeavor to be justified in Christ, we too were found to be sinners, is Christ then a servant of sin? Certainly not! 18 For if I rebuild what I tore down, I prove myself to be a transgressor. 19 For through the law I died to the law, so that I might live to God. 20 I have been crucified with Christ. It is no longer I who live, but Christ who lives in me. And the life I now live in the flesh I live by faith in the Son of God, who loved me and gave himself for me. 21 I do not nullify the grace of God, for if righteousness were through the law, then Christ died for no purpose.

GALATIANS 3

By Faith, or by Works of the Law?

1 O foolish Galatians! Who has bewitched you? It was before your eyes that Jesus Christ was publicly portrayed as crucified. 2 Let me ask you only this: Did you receive the Spirit by works of the law or by hearing with faith? 3 Are you so foolish? Having begun by the Spirit, are you now being perfected by the flesh? 4 Did you suffer so many things in vain—if indeed it was in vain? 5 Does he who supplies the Spirit to you and works miracles among you do so by works of the law, or by hearing with faith— 6 just as Abraham “believed God, and it was counted to him as righteousness”?

7 Know then that it is those of faith who are the sons of Abraham. 8 And the Scripture, foreseeing that God would justify the Gentiles by faith, preached the gospel beforehand to Abraham, saying, “In you shall all the nations be blessed.” 9 So then, those who are of faith are blessed along with Abraham, the man of faith.

The Righteous Shall Live by Faith

10 For all who rely on works of the law are under a curse; for it is written, “Cursed be everyone who does not abide by all things written in the Book of the Law, and do them.” 11 Now it is evident that no one is justified before God by the law, for “The righteous shall live by faith.” 12 But the law is not of faith, rather “The one who does them shall live by them.” 13 Christ redeemed us from the curse of the law by becoming a curse for us—for it is written, “Cursed is everyone who is hanged on a tree”— 14 so that in Christ Jesus the blessing of Abraham might come to the Gentiles, so that we might receive the promised Spirit through faith.

The Law and the Promise

15 To give a human example, brothers: even with a man-made covenant, no one annuls it or adds to it once it has been ratified. 16 Now the promises were made to Abraham and to his offspring. It does not say, “And to offsprings,” referring to many, but referring to one, “And to your offspring,” who is Christ. 17 This is what I mean: the law, which came 430 years afterward, does not annul a covenant previously ratified by God, so as to make the promise void. 18 For if the inheritance comes by the law, it no longer comes by promise; but God gave it to Abraham by a promise.

19 Why then the law? It was added because of transgressions, until the offspring should come to whom the promise had been made, and it was put in place through angels by an intermediary. 20 Now an intermediary implies more than one, but God is one.

21 Is the law then contrary to the promises of God? Certainly not! For if a law had been given that could give life, then righteousness would indeed be by the law. 22 But the Scripture imprisoned everything under sin, so that the promise by faith in Jesus Christ might be given to those who believe.

23 Now before faith came, we were held captive under the law, imprisoned until the coming faith would be revealed. 24 So then, the law was our guardian until Christ came, in order that we might be justified by faith. 25 But now that faith has come, we are no longer under a guardian, 26 for in Christ Jesus you are all sons of God, through faith. 27 For as many of you as were baptized into Christ have put on Christ. 28 There is neither Jew nor Greek, there is neither slave nor free, there is no male and female, for you are all one in Christ Jesus. 29 And if you are Christ’s, then you are Abraham’s offspring, heirs according to promise.

GALATIANS 4

Sons and Heirs

1 I mean that the heir, as long as he is a child, is no different from a slave, though he is the owner of everything, 2 but he is under guardians and managers until the date set by his father. 3 In the same way we also, when we were children, were enslaved to the elementary principles of the world. 4 But when the fullness of time had come, God sent forth his Son, born of woman, born under the law, 5 to redeem those who were under the law, so that we might receive adoption as sons. 6 And because you are sons, God has sent the Spirit of his Son into our hearts, crying, “Abba! Father!” 7 So you are no longer a slave, but a son, and if a son, then an heir through God.

Paul’s Concern for the Galatians

8 Formerly, when you did not know God, you were enslaved to those that by nature are not gods. 9 But now that you have come to know God, or rather to be known by God, how can you turn back again to the weak and worthless elementary principles of the world, whose

slaves you want to be once more? 10 You observe days and months and seasons and years! 11 I am afraid I may have labored over you in vain.

12 Brothers, I entreat you, become as I am, for I also have become as you are. You did me no wrong. 13 You know it was because of a bodily ailment that I preached the gospel to you at first, 14 and though my condition was a trial to you, you did not scorn or despise me, but received me as an angel of God, as Christ Jesus. 15 What then has become of your blessedness? For I testify to you that, if possible, you would have gouged out your eyes and given them to me. 16 Have I then become your enemy by telling you the truth? 17 They make much of you, but for no good purpose. They want to shut you out, that you may make much of them. 18 It is always good to be made much of for a good purpose, and not only when I am present with you, 19 my little children, for whom I am again in the anguish of childbirth until Christ is formed in you! 20 I wish I could be present with you now and change my tone, for I am perplexed about you.

Example of Hagar and Sarah

21 Tell me, you who desire to be under the law, do you not listen to the law? 22 For it is written that Abraham had two sons, one by a slave woman and one by a free woman. 23 But the son of the slave was born according to the flesh, while the son of the free woman was born through promise. 24 Now this may be interpreted allegorically: these women are two covenants. One is from Mount Sinai, bearing children for slavery; she is Hagar. 25 Now Hagar is Mount Sinai in Arabia; she corresponds to the present Jerusalem, for she is in slavery with her children. 26 But the Jerusalem above is free, and she is our mother. 27 For it is written, “Rejoice, O barren one who does not bear;

break forth and cry aloud, you who are not in labor!

For the children of the desolate one will be more than those of the one who has a husband.”

28 Now you, brothers, like Isaac, are children of promise. 29 But just as at that time he who was born according to the flesh persecuted him who was born according to the Spirit, so also it is now. 30 But what does the Scripture say? “Cast out the slave woman and her son, for the son of the slave woman shall not inherit with the son of the free woman.” 31 So, brothers, we are not children of the slave but of the free woman.

GALATIANS 5

Christ Has Set Us Free

1 For freedom Christ has set us free; stand firm therefore, and do not submit again to a yoke of slavery.

2 Look: I, Paul, say to you that if you accept circumcision, Christ will be of no advantage to you. 3 I testify again to every man who accepts circumcision that he is obligated to keep the whole law. 4 You are severed from Christ, you who would be justified by the law; you have fallen away from grace. 5 For through the Spirit, by faith, we ourselves eagerly wait for the hope of righteousness. 6 For in Christ Jesus neither circumcision nor uncircumcision counts for anything, but only faith working through love.

7 You were running well. Who hindered you from obeying the truth? 8 This persuasion is not from him who calls you. 9 A little leaven leavens the whole lump. 10 I have confidence in the Lord that you will take no other view, and the one who is troubling you will bear the penalty, whoever he is. 11 But if I, brothers, still preach circumcision, why am I still being persecuted? In that case the offense of the cross has been removed.

12 I wish those who unsettle you would emasculate themselves!

13 For you were called to freedom, brothers. Only do not use your freedom as an opportunity for the flesh, but through love serve one another. 14 For the whole law is fulfilled in one word: “You shall love your neighbor as yourself.” 15 But if you bite and devour one another, watch out that you are not consumed by one another.

Keep in Step with the Spirit

16 But I say, walk by the Spirit, and you will not gratify the desires of the flesh. 17 For the desires of the flesh are against the Spirit, and the desires of the Spirit are against the flesh, for these are opposed to each other, to keep you from doing the things you want to do. 18 But if you are led by the Spirit, you are not under the law. 19 Now the works of the flesh are evident: sexual immorality, impurity, sensuality, 20 idolatry, sorcery, enmity, strife, jealousy, fits of anger, rivalries, dissensions, divisions, 21 envy, drunkenness, orgies, and things like these. I warn you, as I warned you before, that those who do such things will not inherit the kingdom of God. 22 But the fruit of the Spirit is love, joy, peace, patience, kindness, goodness, faithfulness, 23 gentleness, self-control; against such things there is no law. 24 And those who belong to Christ Jesus have crucified the flesh with its passions and desires.

25 If we live by the Spirit, let us also keep in step with the Spirit. 26 Let us not become conceited, provoking one another, envying one another.

GALATIANS 6

Bear One Another's Burdens

1 Brothers, if anyone is caught in any transgression, you who are spiritual should restore him in a spirit of gentle-

ness. Keep watch on yourself, lest you too be tempted.

2 Bear one another's burdens, and so fulfill the law of Christ. 3 For if anyone thinks he is something, when he is nothing, he deceives himself. 4 But let each one test his own work, and then his reason to boast will be in himself alone and not in his neighbor. 5 For each will have to bear his own load.

6 Let the one who is taught the word share all good things with the one who teaches. 7 Do not be deceived: God is not mocked, for whatever one sows, that will he also reap. 8 For the one who sows to his own flesh will from the flesh reap corruption, but the one who sows to the Spirit will from the Spirit reap eternal life. 9 And let us not grow weary of doing good, for in due season we will reap, if we do not give up. 10 So then, as we have opportunity, let us do good to everyone, and especially to those who are of the household of faith.

Final Warning and Benediction

11 See with what large letters I am writing to you with my own hand. 12 It is those who want to make a good showing in the flesh who would force you to be circumcised, and only in order that they may not be persecuted for the cross of Christ. 13 For even those who are circumcised do not themselves keep the law, but they desire to have you circumcised that they may boast in your flesh. 14 But far be it from me to boast except in the cross of our Lord Jesus Christ, by which the world has been crucified to me, and I to the world. 15 For neither circumcision counts for anything, nor uncircumcision, but a new creation. 16 And as for all who walk by this rule, peace and mercy be upon them, and upon the Israel of God.

17 From now on let no one cause me trouble, for I bear on my body the marks of Jesus.

18 The grace of our Lord Jesus Christ be with your spirit, brothers. Amen.



시애틀 형제교회
COMMUNITY CHURCH OF SEATTLE

3727 240th St SE, Bothell, WA 98021 / 425.488.1004
www.hyungjae.org



교재 다운로드

이 파일은 신년사경회를 위해서만 사용됩니다.
저자의 허락 없이는 무단 전재와 복제를 금합니다.